‘금은방 강도’에 농락당한 경찰

‘영광 사건’ 주범 눈 앞에서 두번 놓쳐

공조수사마저 안 돼

경찰이 두 차례나 ‘영광 금은방 강도 사건’ 주범을 눈 앞에서 놓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용의자 도주 이후 경찰서 간 공조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찰이 무기력하게 범인의 뒤꽁무니만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함평군 나산면사무소 앞 3거리에서 검문 도중 달아난 영광 금은방 강도 용의자 김모(42)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18일 밤 8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매일유업 4거리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지만, 도주한 지 사흘이 지난 21일 밤까지도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특히 달아난 김씨가 영광 금은방을 함께 턴 공범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잠복근무를 서고도 눈앞에서 용의자를 놓쳐 빈축을 사고 있다.

김씨는 18일 함평에서 검문을 받기 2시간30분 전인 낮 12시30분께 고모(42)씨와 함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에서 공범 문모(33)씨를 만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교도소 면회 당시 김씨를 대신해 문씨를 만났으나, 당시 잠복근무를 서던 경찰은 문씨에 대한 면회 신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고씨가 함구로 일관해 김씨가 교도소를 실제 방문했는지의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허술한 현장 대응과 공조수사 부실은 지난 10일 경기도에서 벌어진 검문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씨는 이날 밤 10시께 경기도 포천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의 검문검색을 받게 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김씨는 영광 금은방 강도 사건은 물론, 2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3인조 금은방 절도 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23일 새벽 4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B금은방에서 시가 4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갔다.

김씨와 범행에 함께 나선 공범 2명은 범행 직후 붙잡혔었다. 경찰은 차적 조회 결과, 김씨가 강도 용의자라는 사실과 차주가 고씨라는 점을 알게 됐지만 이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김씨가 광주지역을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300~400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모텔과 호텔, PC게임방, 역과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김씨의 연고지인 서울과 경기지역에 형사들을 보내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영광경찰은 지난 20일 고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공무원 시험 준비 휴학생

부모 꾸지람에 투신 자살

휴학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던 대학생이 18층 아파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18층에 사는 광주대학교 3년 김모(27)씨가 이 아파트 1층 주차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이웃 주민 K(27)씨가 발견,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K씨는 경찰에서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김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투신 직전 휴학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가족들 몰래 휴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학 문제로 고민을 해온 김씨가 이날 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8043〉 김종두

건조주의보 속 산불 잇따라

나주·광양서…1명 부상

21일 전남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낮 최고기온이 14.6도까지 오른 가운데 산불이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께 나주시 봉황면 야산에서 불이 나 0.1ha를 태우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 나주시청 직원 등 42명과 산림청 헬기 등이 동원돼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에 앞서 낮 12시47분 광양시 중동 야산에서 오모(63)씨가 벌꿀을 채집하다 화기 사용 부주의로 불을 내 오씨가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었다. 이 불은 임야 0.1ha를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건조주의보는 곡성군과 구례군, 여수시, 광양시 등에 발효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조차에 방화 1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1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유조차를 보고 불을 낸 손모(19)군을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군은 지난 20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보훈회관 앞길에 주차된 주모(45)씨의 경유 1천ℓ 가 실려있는 1t 유조차 뒷바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스킨헤드’ 테러 급증 러시아 여행 주의보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러시아 인종차별주의자 집단 ‘스킨헤드’의 외국인 대상 테러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지 교민·유학생과 여행객들에게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지난 20일 홈페이지(www.nis.go.kr)를 통해 “최근 러시아에서 실업자가 된 스킨헤드들이 외국인 대상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우리 유학생 2명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스킨헤드의 폭력적인 행태는 아돌프 히틀러 생일(4·20)과 사망일(4·30) 전후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객과 교민, 유학생들은 공원·지하철 등 스킨헤드가 모이는 곳을 피하고 심야시간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전남대 후문 방음벽 철거 전남대 후문 주변과 보도 사이를 15년동안 가로막았던 600여m의 방음벽이 21일 철거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전남대와 방음벽 철거에 합의하고 39억2천여만원을 들여 이 일대를 명품 가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감나무 묘목 값 부풀려 거액 횡령”

장흥 모 농협조합장 고발

경찰 수사 나서

장흥군 모 농협 조합장이 감나무 특화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흥경찰은 21일 장흥 모 농협 조합장 K씨가 감나무 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2만3천400여주의 묘목값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사업을 발주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이 2천300원 선인 감나무 묘목을 최고 5천원까지 구매한 뒤 차액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농협과 장흥군청이 각각 5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이 사업은 137가구에 감나무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노환 고통 남편 살해 법원, 80대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노환으로 고생하던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할머니 A(8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옆에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리자 너무 안타까워서 피해자를 죽이고 난 후 따라가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자택에서 지병을 앓던 남편 B(86)씨를 남편이 입고 있던 한복 바지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무등산 결빙구간 ‘미끌’ 10대 부상 … 헬기 이송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무등산 중머리재 밑 300m 지점에서 김모(17)군이 산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오른 팔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은 응급처치 뒤, 김군을 다시 중머리재에 위치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이송, 소방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광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내린 눈의 영향으로 결빙된 구간이 많을 뿐만아니라 해빙된 구간도 질퍽거려 등산로가 매우 미끄럽다”며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흥군의원 ‘도박 몰카’ 수사

쌍나팔

○…고흥군의회 한 의원이 도박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입수돼 경찰이 도박여부와 촬영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고흥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 경찰서 한 형사의 이메일로 고흥군의회 A의원이 포커 게임을 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전송돼 수사에 돌입.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도 고흥군 점암면 모 주유소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지만 당시 판돈이 17만2천원으로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A 의원을 도박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영상이 찍힌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